

No.82

Japan Weekly Digest

2011. 4. 16. ~ 4. 22.

□ 금주의 이슈

- 동북지진대책 보정예산 2200억엔, 과거최대
- 도쿄전력, 후쿠시마원자력 해결 로드맵 발표
- 정부, 복구자금 확보를 위한 국채발행 검토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- 경산대신, 원전사고관련 국가책임 인정
- 피해지역 중소기업에 기술전문가 파견
- 동북상공회 등 피해지역 지원거점 30% 손실

□ 일본기업전략

- 지진피해로 동북지역 첨단연구 중단 속출
- 혼다 신형차생산, 사이타마에서 스즈카로 이전
- 日공작기계회사, 中·獨기업과 출자하여 중국진출

□ 보고서 리뷰

- 日액정, 지진 영향으로 대체·해외생산 확대



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□ 금주의 이슈

○ 동북지진대책 보정예산 2200억엔, 과거최대

- 동일본대지진 재해 관련 보정예산 회의가 19일 개최됨
- **보정예산은 과거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**이고, 27일 임시의회에서 제안될 예정임
- 보정예산 가운데, 1만8000호 **가설주택건설에 1000억엔**을 사용하고 건물잔해 철거 등 **산업폐기물 처리에 750억엔**, 물자공급이나 대피소운영 등 **피해자지원에 330억**, **고용대책·산업복구에 90억엔**을 투입할 예정
- 고용대책으로 60억 엔을 사용하고, 피해자를 지자체 및 민간 기업에서 5000명의 임시직원으로 고용한다는 계획

○ 도쿄전력, 후쿠시마원자력 해결 로드맵 발표

-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해결을 위한 2단계작업 로드맵을 발표했음
- 6~9개월 이내에 원자로를 100도未滿 안정된 상태로 유지, 「냉온정지」 시킨다는 계획
- 제1단계에서는 향후 3개월 내에 원자로를 냉각시키고, 제2단계는 원자로의 냉온정지를 유지하면서 방사선량을 대폭 억제한다는 계획
- 도쿄전력 가쓰마타 회장은 로드맵 실행비용과 관련하여 “금융기관에서 2조엔의 자금을 확보했다.”고 밝힘

○ 정부, 복구자금 확보를 위한 국채발행 검토

- 민주당의 오카다 간사장은 18일, 동일본대지진 재해의 부흥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「**부흥재생국채**」를 발행하고, 종래의 국채와는 별도 관리한다는 방침을 표명
- 정부·민주당은 이 국채의 용도를 복구목적으로 한정하고 **△ 시내 도로, 항만 등 인프라 정비 △ 중소기업 지원 등에 활용할 방침**
- 국채상환 재원으로 소비세율 인상 등의 증세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, 자민당·공명당 등의 반대가 심하여, 실제 국채발행 여부는 불투명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○ 경산대신, 원전사고관련 국가책임 인정

- 가이에다 경제산업성 대신은 19일,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손해배상과 관련, “도쿄전력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, 국가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.”라고 언급
- 同대신은 “국가의 지원은 최종적으로는 국민 부담이 된다. 세금 형태가 좋을지 전력요금 인상으로 해야 될지, 국민부담에 대해 검토 중이다.”라고 언급
- 도쿄전력의 부담에 대해 “우선 도쿄전력에서 논의해야 하는 문제이고 도쿄전력의 보유자산 매각이나 임원보수 삭감 등은 당연한 것”이라는 인식을 표명

○ 피해지역 중소기업에 기술전문가 파견

- 경제산업성은 지진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복구와 관련,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를 통해 설비보수 경험 등이 풍부한 기술전문가를 파견한다는 방침
- **공장설비의 보수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무료로 설비보수나 기술 지원을 한다는 방침**
- 현재, 전문가파견을 필요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전문가수, 파견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음. 4월내 국회제출이 예정되어있는 2011년도 제1차 보정예산안에 기술계 전문가파견사업이 포함될 예정

○ 동북상공회 등 피해지역 지원거점 30% 손실

- 대지진 영향으로, 동북지역의 중소기업지원을 담당하는 상공회의소나 상공회가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고 닛케이신문은 16일 보도
- 동북·간토지역에서는 전체 약30%에 해당하는 145개 거점이 피해를 입었음. 정부는 저리용자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**상공회의소 등의 피해로 정보가 잘 전달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**을 지적
- * 동북, 간토지역 6현에 있는 상공회·상공회의소는 509. 피해 입은 145거점 가운데, 27거점은 전과·반과 상태
- 경산성은 현재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, 현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체제를 복구할 방침

□ 일본기업전략

○ 지진피해로 동북지역 첨단연구 중단 속출

- 동북대학(東北大學)등 일본 첨단연구시설의 지진피해로 많은 연구가 중단되고 있다고 닛케이신문이 보도
- 전력소비가 큰 첨단기기 특성 상 전력부족으로 실험을 하지못해 우수한 인재가 논문을 집필할 수 없는 등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
 - * 高에너지가속기 연구기구, 산업기술종합연구소, 쓰쿠바대학, 물질·재료연구기구에서 피해 보고
- 연구수준 유지와 연구성과의 지연을 막기 위해 △복수의 대학·연구기관과의 연계 강화 및 기기의 상호활용 △피해지역 연구자에 대한 연구시설 제공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도

○ 혼다 신형차생산, 사이타마에서 스즈카로 이전

- 혼다자동차는 18일, 사이타마제작소에서 제조예정이었던 웨건 신형차 「피트 셔틀」의 생산을 스즈카제작소로 이전한다고 밝힘
- 도쿄전력 관할 내에 있는 사이타마제작소는 여름 전력사용제한으로 생산에 지장이 예상되기 때문에, 주부전력 관할 내의 스즈카로 이전을 결정했음. 신형차는 당초 3월 중순에 출시예정이었으나, 지진영향으로 연기되고 있었음
- 혼다자동차는 대지진 영향으로 정지하고 있었던 사이타마제작소를 11일부터 재개하여 미니밴 「프리도」와 「오딧세이」등을 생산

○ 日공작기계회사, 中·獨기업과 출자하여 중국진출

- 모리세이키제작소(森精機製作所)는 19일, 독일GILDEMEISTER AG, 중국 선양지창(瀋陽機床)과 출자하여 중국에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교섭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
- 스마트폰이나 PC 등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소형machining center를 생산할 계획. 출자비율은 3사에서 대등하게 한다는 방침. 예상되는 중국 공작기계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생산체제 구축이 목적
- 그동안 모리세이키는 중국에서 OEM으로 공작기계를 생산판매하고 있었음

□ 보고서 리뷰

日액정, 지진 영향으로 대체·해외생산 확대

- 일본대지진 영향으로 전력 및 부품조달에서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, 액정 패널생산 정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확대
- 액정사업은 한국·대만 기업과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부문으로, 감산이 장기화될 경우 대폭적인 업계재편까지도 예측되고 있음

□ 액정관련 회사의 생산전략

- 지진이 발생한지 한달이 경과한 현재, 각 회사는 복구를 서두르는 한편, △대체생산 △해외생산 위탁 등을 통해 생산량을 유지하려고함

- 日액정회사의 움직임

▲도시바그룹의 도시바 모바일디스플레이(중소형 액정패널)

- 지난달 28일, 생산을 일부 재개했으나, 대지진 전 생산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. 일부제품의 대체생산을 이시카와 공장(이시카와현)에서 시작

▲파나소닉 액정디스플레이

- 히메지(姫路) 공장에서 증산하여 당분간은 공급량을 유지할 방침. 그러나 히메지에서 생산하지 않는 26형 디스플레이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생산할지가 과제

▲샤프

- 부품부족에 의해 가메야마공장의 액정패널 생산을 중지. 당장은 재고가 있기 때문에 TV 생산에 문제는 없지만, 부품부족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

▲히타치 디스플레이

- 수요가 높은 중소형 액정패널 생산을 대만의 치메이 오토일렉트로닉스에 위탁

□ 시사점

- 해외기업에 대한 생산위탁이나 대체생산 등 일본 업체의 생산다변화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
- 일본의 이러한 사업재편 움직임을 잘 포착하여, 한국에서의 대체생산 가능성이나 협력강화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
【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】

- (1) 『지진이후의 경제상황』 NISSEI기초연구소, 4월16일
*출처:http://www.nli-research.co.jp/report/econo_letter/2011/we110415.pdf
- (2) 『동북대지진 경기에 대한 영향』 미쓰비시UFJ리서치, 4월18일
*출처:http://www.murc.jp/report_pdf/20110418_155658_0948506.pdf
- (3) 『동북대지진후의 경제 부흥의 과제』 경제산업연구소, 4월20일
*출처:http://www.rieti.go.jp/jp/events/bbl/11040701_1.pdf
- (4) 『COP17를 향한 일본전략』 Fujitsu 종합연구소, 4월20일
*출처:<http://jp.fujitsu.com/group/fri/downloads/report/research/2011/no370.pdf>
- (5) 『지진이 세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생각에 미친 영향』 일본리서치, 4월21일
*출처:<http://www.nrc.co.jp/report/pdf/110420.pdf>
- (6) 『3월 중소기업경기조사』 중소기업단체중앙회, 4월21일
*출처:<http://www2.chuokai.or.jp/keikyou/kei1103.pdf>

【금주의 일정】

일 자	주 요 일 정
4월 18일(월)	○ 동북대지진 복구 관련, 참의원 예산심의회 개최 ○ 도요타, 국내 모든 공장에서 생산재개 ○ 日本석유연맹 회장 기자회견
4월 19일(화)	○ 4월 24일 한중일 경제무역장관회의 개최 발표(경산성) ○ 체르노빌 사고발생 25주년 정상회담 개최(우크라이나) ○ 3월 소비자 동행조사(내각부)
4월 20일(수)	○ 사쿠라이 경제동우회 회장 기자회견 ○ 2월 산업활동지수 발표(경산성) ○ 3월 무역통계 발표(재무성)
4월 21일(목)	○ 4월 주요은행대출동향 설문조사(일본은행) ○ 2월 경기동행지수 발표(내각부)
4월 22일(금)	○ 3월 담배판매실적 발표(일본담배협회)